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7. 2 통권 제26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統一經濟

2
1997
제26호

편집자의 글
미로에 접어든 남북 관계 2

초 점
1997년 정부의 대북 정책 • 도준호 4
확대되는 대만 핵폐기물 파문 • 배명복 9

특 집
1997년 북한 대외 관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북미 관계의 주요 변수와 전망 • 허문영 16
북일 수교 협상과 경제 협력 • 양기호 26
북중 관계의 제한 요인과 촉진 요인 • 김승채 32
북러 관계 회복의 배경과 성격 • 하용철 40

기획연구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 전홍택 48

시사논단
경수로공급협정 상의 향후 이행 과제 • 김명기 70
경제난의 원인에 대한 북한의 자체 평가 • 임을철 87
탈북 주민 문제와 이스라엘의 이주민 정책 • 최보선 98

통일다리
북한 최대의 명절, 김정일 생일 • 김연극 118

북한경제
권역별 투자 환경(Ⅱ)- '나진 · 선봉권' • 홍순직 122

해외기고
독일 통일의 국제적 역학 관계: 'No-Win' 상황에서
급작스런 성공으로 • Ulrich Albrecht 140

자 료
기업인 방북 현황 및 평가 150

통 권 제26호
등록번호 라-6926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7년 2월 10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홍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이영수 김경균
홍순직 오삼교
이병두
편집주간 심재철 이태섭
편집교열 장문숙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37-4005
F A X (02)730-1771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미로에 접어든 남북 관계

김

북 관계가 다시 미로에 접어든 느낌이다. 북한이 쌀 50만 톤 도입을 3측설명회 참석 조건으로 요구하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일이 꼬인 것이다. 여기에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시도를 둘러싼 남한과 대만의 갈등이 국제적 파장을 더하고 있어 올해 남북 관계의 전망은 낙관을 불허하고 있다. 이 점에서 도준호 조선일보 편집부국장의 “1997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올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늠해보는 좋은 안내자의 구실을 해줄 것이다. 한편, 중앙일보 배명복 기자는 “확산되는 대만 핵폐기물 과문”에서 핵폐기물 북한 이전 문제의 국제 정치적 민감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세련된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올해 김일성 사망 3주년을 맞이하여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북한 대외 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에서 올해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룬 이번호의 특집은 올해 북한의 대외 관계를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먼저 민족통일연구원의 허문영 박사는 “북미 관계의 주요 변수와 전망”에서 북한이 경제난 해결과 체제 유지 보장을 위해 대미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이에 따른 체제 불안정화 가능성과 미국의 단계적 접근 방식때문에, 올해 북미 관계는 실무적 차원의 관계 개선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공회대학교의 양기호 교수는 “북일 수교 협상과 경제 협력”에서 북일 상호간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미 관계의 진전 여부, 한국 정부의 입장, 일본의 배상 문제 등의 요인들이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의 김승채 박사는 “북중 관계의 제한 요인과 촉진 요인”에서 북중 관계가 최근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올해도 양국 관계 개선의 제한 요소보다는 촉진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의 하용출 교수는 “북러 관계 회복의 배경과 성격”에서 북러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 보면서, 앞으로 러시아의 경제 성장과 민족주의적 성향이 동북아의 세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달의 기획연구인 KDI 전홍택 박사의 “북한의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제2경제 즉, 지하 경제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경제의 구성과 규모,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어 관심을 끄는 논문이다. 시사논단에 서는 명지대학교 김명기 교수가 “경수로 공급 협정 상의 향후 이행 과제”를 통해 협정의 세세한 부분을 짚어나가면서 경수로 사업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겨레21」의 입을출 북한전문기자는 “북한 경제난에 대한 자체 원인 분석”을 통하여 김일성 사망 1년 반 동안의 경제 관련 연설문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의 실상과 위기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이 1994년부터는 외부 자본이나 지원을 중요시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로써 김일성이 김정일시대에 북한이 보다 개방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년호부터 실기 시작한 “권역별 투자 환경” 평가로는 本院의 홍순직 연구위원이 북한이 자본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포함된 ‘나진·선봉권’의 산업 기반 및 경제제도적 투자 환경을 검토하는 글을 실었다.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이나 투자 진출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경제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해외기고로는 올리히 알브레히트 박사가 “통독의 국제적 역학 관계: ‘No-Win’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성공으로”라는 글을 보내주었다. 통일 과정에서 주변 국가와의 사전 정지 작업의 필요성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승전 4개국 상호간의 견제와 입장 조율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주적 통일 외교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함축성이 큰 논문이라 생각된다.

올해는 남한의 대선, 북한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 미국의 클린턴 2기 행정부의 등장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한반도 정세에 변수가 많은 해이다. 그런 까닭에 단기적·전술적 차원의 대응은 자칫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성을 가지고 장기적·전략적 차원의 정책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복잡다기한 국제 정치의 흐름 속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이라는 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1997년 2월

편집자